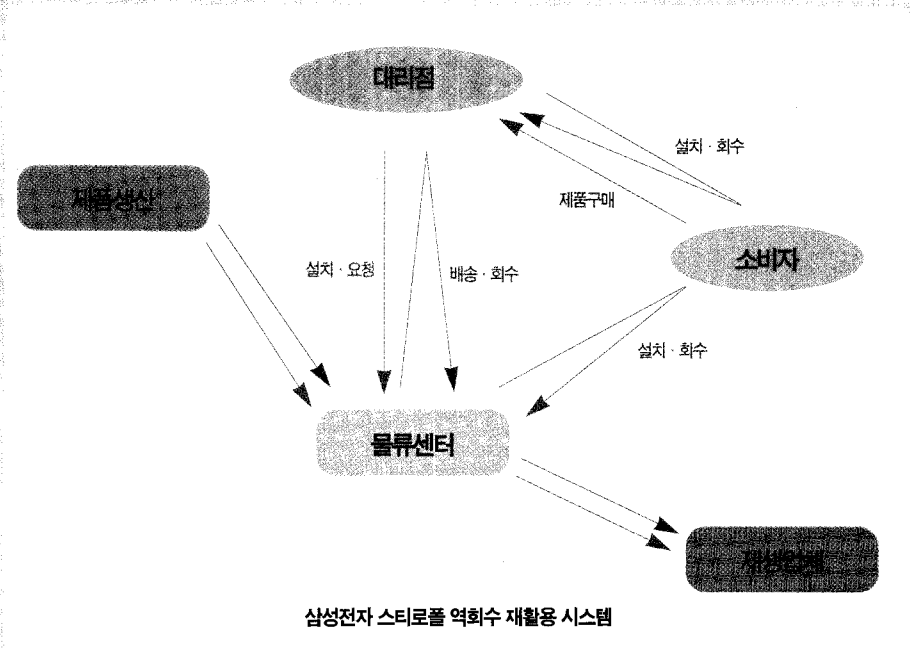


# “연간 발생량 2,400톤 중 55%재활용”

가전 제품의 포장용 완충재 연도별 회수·재활용·처리 및 감량화 지침에 따라 삼성, LG를 비롯한 대형 가전사는 자체적으로 역회수 재활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삼성전자가전 제품의 스티로폴 포장재 회수 사업을 담당하고 토로스물류의 이진공 대리를 통해 알아보았다.

삼성전자는 협회와 96년 2월 페스티로폴 회수·재활용·처리 협정을 맺고 가전 대리점에서 가전 제품 판매 후 발생하는 스티로폴 완충재를 각 물류센터 별로 회수하여 전국 10개의 재생 업체에 위탁해 처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연간 발생하는 2,400톤의 스티로폴 중 55%를 재활용하고 있다.

기간물류 → 소매물류 →



### 경제적 효과

1. 가전 제품이 가정에 배달 되는 즉시 스티로폴 완충재의 회수가 가능해 지고 빗물, 먼지 등 불순물이 없는 깨끗한 상태로 재생 공장에 공급돼 좋은 품질의 스티로폴 재생 원료를 생산할 수 있다.
2. 소매물류 재활용 방식은 물류센터에서 직접 제품을 소비자에게 배달할 수 있어 스티로폴 완충재 회수가 100%가능해지고 대리점의 재고 관리가 없어진다.